

## "역시 MZ"

‘무엇이 그들을 조롱의 세대로 만들었는가’

2018년, 대한민국 사회에 약 2,300만 명의 신인류가 등장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며, 환경과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들’은 등장 이후 곧바로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떠올랐고, 트렌드를 주도하는 핵심 세력으로 성장했다. 기존 인류는 센세이션(sensation)한 그들에게 열광했고, 그들이 그리는 새로운 사회를 꿈꿨다. 하지만 2023년 현재, 그들은 ‘MZ세대’라는 이름으로 기성세대에 의해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인 ‘MZ세대’, 그들이 ‘조롱의 세대’가 된 사연은 무엇일까.

기민정 기자 [bizarre\\_jade\\_stay@naver.com](mailto:bizarre_jade_stay@naver.com)

기민정 기자 [bizarre\\_jade\\_stay@naver.com](mailto:bizarre_jade_stay@naver.com)

MZ,

## 추앙받던 그들의

え

7

7 1 3

## MZ 문화,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이유

“에어팟을 끼고  
일을 해야 능률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업무 중 무선이어폰을 빼고 일을 하라는  
상사의 말에 대한 한 MZ세대 신입사원의  
입장이다.

해당 대사는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블랙코미디(Black Comedy, 부조리한 주제를 과장해서 재미있게 만드는 풍자 형식의 코미디 스타일)’ 장르 기반의 코미디 쇼 <SNL 코리아> ‘MZ오피스’에 등장하는 대사다.

‘MZ오피스’는 MZ세대와 기성세대 간 발생하는 직장 내 갈등을 주제로 한 코너로, 회사라는 특수한 공간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세대 간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히, 이어폰을 꽂고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 중 브이로그를 찍는다면? 반찬 리필이나 수저 세팅, 커피 심부름 등을 나몰라라 하는 등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MZ세대의 세태를 꼬집어 신랄하게 풍자한다.

이처럼 요즘 미디어 플랫폼이나 매스컴을 보다 보면 정시에 출·퇴근하는 것, 업무 중 머리 그루프를 하고 화장을 하는 것, 슬리퍼를 신고 출근하는 것 등의 MZ세대의 세태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내용의 콘텐츠들을 많이 양산하고 있으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명 ‘MZ세대’라는 용어가 처음 우리 사회에 등장했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MZ세대는 트렌디하고 개성있는 세대로 여겨지며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각광을 받았다. 번뜩이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유행을 만들어내 우리 사회에 역동감을 부여하고, 경제 활동의 주축으로 자리하면서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소비 개념도 적극 도입시킨 등 우리 사회 다양한 방면에서 긍정적 인 변화를 만들어왔다. 이에 기존 세대는 MZ세대 그들만의 열려있는 가치관으로

딱딱했던 대한민국 사회 문화에 새로운  
 봄(Boom)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  
 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  
 래를 그렸다. 하지  
 만 언제부터  
 인 가

(M 쥐 같은 것이 말대꾸  
를 짹짹거리네?)



SNL 'MZ오피스' 中 상사(박해수 분)와 MZ세대 사원(주현영 분) 간 갈등 장면 트레이싱(tracing)

(아~응 딱딱딱~)



## 세대 간 불화, 그 심각성은...

그렇다면 세대 갈등, 그 심각성은 얼마나 될까.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2021~2022년 실시한 「세대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에 대해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각각 85%, 81%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훌쩍 넘는 해당 수치는 현재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변에서 세대 갈등을 쉽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와 관련해, 먼저 세대 갈등이 가장 강하게 표출되는 곳인 직장 내 세대 갈등에 대해 알아봤다. 인터넷이나 SNS에 '세대 갈등'이

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전체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직장 내 세대 갈등은 심각해 보였다. 이러한 심각성은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0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30대 대·중견기업에 소속된 직장인 약 1만 3천여 명 중 63.9%가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응답했다. 또 대표적인 구인·구직 사이트 사람들이 2021년 10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354명 중 77.2%가 세대 차이를 실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차이의 실감은 곧바로 갈등으로 이어졌고, 사람들이 곧이어 다음 달인 11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377개의 전체 응답

기업 5곳 중 2곳(39.9%)에서 세대 갈등으로 퇴사한 직원이 있으며, 연령대별 퇴사자 비율은 'MZ세대'(84.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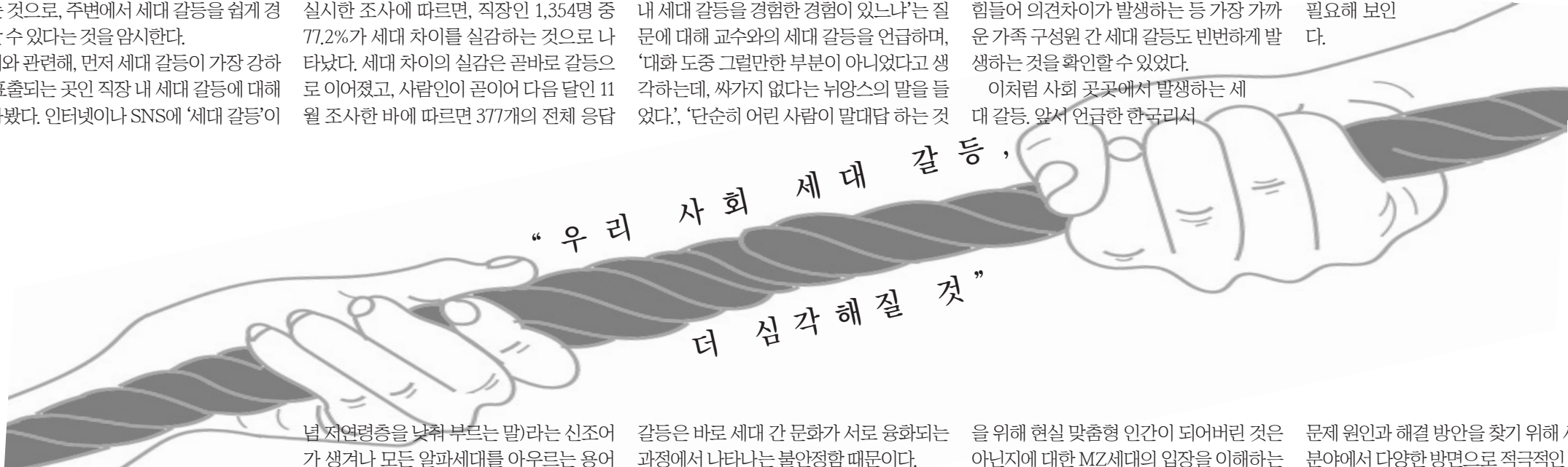
비단, 직장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 대학 내에서도 세대 갈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2월 23일부터 4일 간 우리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대학 내 세대 갈등을 경험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교수와의 세대 갈등을 언급하며, ‘대학 도중 그럴만한 부분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싸가지 없다는 뉘앙스의 말을 들었다.’ ‘단순히 어린 사람이 말대답 하는 것

처럼 이야기하며, 무시 받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응답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해당 설문조사 내 (조)부모님, 친척어른 등의 기성세대와 겪은 세대 갈등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신조어나 밈 등의 사용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없고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하는 지에 대한 의견차이가 발생하거나, 가치관이 달라 원만한 의사소통이 힘들어 의견차이가 발생하는 등 가장 가까운 가족 구성원 간 세대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세  
대 갈등. 앞서 언급한 한국리서

지 「2022 세대인식조사」 보고서에서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 전망에 대해 묻는 질문에, 86%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응답했고, 8%만이 지금보다 완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내비쳤다. 기성세대와 MZ세대 간 격앙되어 가는 세대 갈등에 해결책과 합의점이 필요해 보인다.



[기자생각]  
3차원 좌표에 교  
점이 찍히길 바라며

기성세대와 MZ세대 간  
은 갈등을 채 해소하기도 전, 또  
큰 신인류가 등장했다. 2010년 이후 출생  
한 세대인 '알파( $\alpha$ )세대'. 등장한 지 얼마 되  
지 않았지만, '잼민이'(민폐를 끼치는 무개

넋 저연령층을 낮춰 부르는 말)라는 신조어가 생겨나 모든 알파세대를 아우르는 용어가 되어버리는 등, 벌써부터 세대갈등의 대물림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에 세대 갈등이 겹잡을 수 없이 심화되기 전, 현재 사회 주축 세대 간 세대갈등 해결과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범이나 제도에도 계도기간이라는 게 있  
듯, 모든 변화에는 과도기라는 것이 있다. 현  
재 기성세대와 MZ세대 간 극심한 대립과

같은 바로 세대 간 문화가 서로 융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안정함 때문이다.

이에 서로의 문화가 가진 차이점만을 두고 혐오하고 물어뜯는 것이 아닌, 서로의 공통점과 장점에 집중하여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기성세대는 그들이 닦아놓은 환경 속에서 형성된, 취업도 결혼도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어려운 각박한 현실과 사회가 MZ세대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은 아닌지, 생존

을 위해 현실 맞춤형 인간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에 대한 MZ세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MZ세대 또한 마찬가지로 기성세대를 무조건 배척하려는 것이 아닌, 그들이 살아온 지혜를 본받고, 배울 점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세대 갈등 문제가 점차 불거짐에 따라,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으로도 세대 간 갈등 완화와 화합을 위해 세대 갈등

문제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적극적인 논의를 거치며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X세대(기성세대), Y세대(밀레니얼 세대), Z세대 3세대가 형성하는 3차원이라는 사회 속 그들이 동일한 좌표 상에서 만나 교점을 이루기를, 이후 알파세대라는 새로운 수직선이 그 교점을 지나며 모든 세대가 화합을 그려 나가는 4차원 미래 사회가 형성되기를 희망한다.